

‘스크래치’로 가득한 세계 부정형 언어로 그려내다

광주 출신 백설이 시인 유고시집 ‘캣스크래치’ 나와



여기 한 시인이 있다. 백설이 시인. 광주 유덕초와 유덕중을 졸업했다. 이후 고양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전남여상 디지털디자인과를 졸업했다.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극작과에 입학해 매거진 'K-Arts', 한예중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빼어난 문학적 기량과 열정을 겸비해 장래가 촉망된 시인이었다. 그의 문재(文才)는 유덕중 2-3학년 때 광주시 예술영재교육원 문예창작전공 1, 2기를 수료했을 만큼 이미 알려져 있었다. 고교 재학 당시에는 이미 문체부 장관상 두 차례, 환경부 장관상 한 차례를 포함해 총 74개 문예창작 대회에서 입상했다.

그러나 그는 재능의 꽃을 더 활짝 피우려 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유명을 달리했다.

이번에 백설이 유고 시집 '캣스크래치' (문학들)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제목이 말해주듯 작품집은 '스크래치'로 가득한 세계를 상징한다. 계획하거나 정련할 수 없는 세계와 존재의 불협화음을 스크래치하듯 시인은 부정형의 언어로 그려낸다.

한희연 시인은 그의 시집을 일컬어 "김언희, 실비아 플라스, 앤 섉스턴 같은 이름들 가에 나란히 놓아도 부족함 없을 만큼 당당하고 파워풀한 시집"이라고 평했으며 이영주 시인은 "나는 이제 '백설이라는 시'의 새로운 장를 열게 되었다"고 상찬했다.

무엇보다 백설이 시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꿈 꿀 수 있는 형상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는다. 다음의 시에서 시인은 스

스로 어떤 대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너는 수억 개의 얼굴을 가질 것이며/ 이윽고 기형적인 빛을 쏘는 태양이 될 것이다", "무엇도 날지 못하는 구멍으로 무엇이든 쏟아낼 수 있다"('돌아온 문탁 괴물')

모두 3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유작에서 뽑은 45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인의 비극적 인식이 드러난 '부목 채집', '고양이와 사람에 관하여' 외에도 '투입구에 사물을 넣지 마십시오', '모자를 찾아서' 등 사랑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노래한 시편들이 그것이다.

그의 시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문학에 잔잔한 '충격파'를 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안타깝게도 멈춰 버렸다. 다만 그의 시에 대한 열정은 자신의 예시에 '풀려나는 존재, 운동하는 가능성-시와 리듬'에서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균건하게 맺힌 결실에서 존재를 풀어주는 일,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시인이다. (중략) 풀려난 존재는 어디로든 튀어나갈 힘을 지니고 있다. 마구마구 튀어오르고 뻗어나간다.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 속에서 존재가 가진 '리듬'이 발견된다. 내가 되고 싶은 시인은 이 불가능한 리듬을 가능하게 하는 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8년 배경 유쾌·통쾌한 오락영화”

26일 공개 ‘서울대작전’ 유아인
포니·올드스쿨 음악 등 감성 더해



넷플릭스 영화 '서울대작전' 주인공 유아인.

“1988년 서울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열정,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유쾌하고 통쾌하게 펼쳐지는 오락영화입니다.”

뉴트로 감성을 내세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울대작전'이 26일 공개된다. 주연 배우 유아인은 2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그 시절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음미하고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작전'은 자타공인 최고 드라이버 동욱(유아인 분)과 친구들이 최고 권력자의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유아인은 동욱에 대해 “저와는 굉장히 상반된 인물”이라면서 “겉멋이 아주 짙었고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그 안에서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쫓는, 젊은이의 뜨거움을 잘 잡았다”고 소개했다.

미국 데이тона 대회 출전을 꿈꿀 정도로 뛰어난 운전실력을 자랑하는 동욱은 신학과 출신 클럽 DJ 우삼(고경표), 서울 지리를 꿰고 있는 인간 내비게이션 북남(이규형), 바이크동호회 서울지부 회장 윤희(박주현), 기계 천재 막내 준기(윤성우) 등 일명 ‘뺑구뺑’ 친구들과 비자금 수사 작전에 스파이로 투입된다. 유아인은 “이 배우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팀이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전에 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경표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 다시 한 번 1988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출연한다. 그는 “새로운 1988년을 살아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면서 “(드라마에서는) 당대의 서정적인 면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예전 것과 새로움을 섞어냈다”고 말했다.

이들의 대적점에 선 정권 비선실세 강 회장 역에는 문소리가 나선다. 문소리는 “악역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출연했다”며 웃었다.

이어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찌든 인물이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울 리 없고 아름다워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딱지딱지 (문은) 욕망을 어떻게 추하면서 존재감 있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1988년을 드러내는 소품들에 요즘 시대 감성을 더했다. 포니 픽업 등 올드카를 개조해 차량 추격신에 사용했으며, 작품 곳곳에는 강렬한 비트의 올드 스퀘어 음악과 패션이 녹아있다.

연출을 맡은 문현성 감독은 “198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명과 암이 가장 격렬하게 대립함과 동시에 공존했던 시대”라면서 “그런 배경 속에서 힙합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버라이어티하면서도 스펙터클한 영화를 탄생시키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강제 철거된 상계동, 전두환 군사정권을 연상케 하는 장면도 작품에 등장한다. 문 감독은 “가상의 이야기와 1988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상계동을 포함한 설정을 영화 곳곳에 배치했다”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재미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진흥원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 추진

사라져가는 골목이나 건물은 훌륭한 호남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근현대 호남의 역사가 깃든 공간으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보관,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근현대 호남의 역사를 가능할 수 있는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한다. 호남의 역사를 기록문화 구축의 장으로 편입해 근현대 역사의 사진 스토리아카이브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급격히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건물이나 골목 같은 호남문화 유산을 보존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련의 고문서류 수집과 보존, 정리 및 호남 선현의 시문집 국역 위주에서 벗어나 사진을 이용한 새로운 기록문화로 쇄신해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진흥원은 오는 9월 시작하는 근현대 역사사진 자료 공모를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은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를 통해 호남의 역사를 기록문화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호남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다양한 근현대 사진 자료가 공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MBC ‘강변가요제’ 21년 만에 부활...내달 3일 원주서

1200여명 지원...12개팀 본선

1980~1990년대 신인가수 등용문 역할을 한 MBC ‘강변가요제’가 21년 만에 부활한다.

MBC는 다음 달 3일 강원도 원주서 간현유원지에서 ‘강변가요제 뉴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1978년 ‘강변축제’로 처음 막을 올린 ‘강변가요제’는 수많은 히트곡과 스타를 배출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참신한 노래와 신인 발굴이라는 본래 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중의 반응도 시들해지면서 2001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지난해 11월 ‘강변가요제:레전드’가 열렸지만, 이때는 경쟁 없이 역대 수상자와 후배 가수들이



추억의 무대를 재현하는 콘서트로 꾸려졌다.

21년 만에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올해 강변가요제에는 1천2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1·2·3차 예선을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감성골목, 구만, 사운드힐즈, 수정, 오봇, 오헬렌, 은도, 크랙베리, 프리한, 한리이, FRankly, New evo 등이다.

심사위원은 김종진, 김현철, 박선주, 윤일상, 이석훈이 맡았다.

방송인 하하와 정다희의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하며, 더보이즈, 우주소년, 폴킴, 이소정이 축하무대를 꾸민다.

본선 공연은 음악-엔터테인먼트 채널인 MBC M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